

보다는 「얼마나 많은 우유를 생산하느냐?」가 낙농소득향상(경영합리화)의 지표(指標)가 되는 세상이다.

「미국낙농의 경우는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300-70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 40두), EU(구라과 제국)는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200-30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 30두-40두)정도이며 일본은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200-40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 30두-50두)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필자의 추산으로는 노동종사자 1인당 우유생산량은 불과 100-15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15두-20두) 생산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당 우유생산량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부문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극도로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젖소의 능력개량에 힘쓰며 젖소사양관리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 **둘째, 토지관리와 젖소관리를 두 분야로 구분하여 재산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자금조사료의 생산을 위한 파종과 수확시기의 낙농가들 모습은 「낙농경영이 젖소를 키우는 것인지? 사일리지나 건초를 만드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낙농은 “젖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인데 젖소의 관리는 버려두다시피 하고 많은 시간을 사일리지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여 젖소관리와 환경관리는 소홀히함으로써 막대한 경영손실(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우유의 생산 등)을 가져오는 등 낙농경영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극히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 **셋째, 완전타급 조사료 시스템의 활성화는 정부의 자금조사료 생산자원을 보다 적극화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국가차원의 자금조사료 생산 촉구)**

정부지원에 의한 콘트랙터(의탁경영)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며 조사료생산의 경제성이 뚜렷해지면 정부의 정책지원도 확대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토지개량, 종자선택, 시비관리, 예취시기, 사일리지의 저장 및 공급등은 대형집단화 의탁작업 시스템(Contractor)만이 경제성 있는 조사료생산과 국토보존 관리의 길이기 때문이다.

• **넷째, 조사료품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이용기술의 고도화를 촉진케 한다.**

사일리지, 건초 등 조사료품질의 가치평가와 등급기준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동안 유통조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품종에 따라 이용하는 무지식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과학화 사양관리의 엄청난 걸림돌”인 것이다. 조사료의 이용성에 따른 품질선택이야 말로 젖소 사양기술의 기본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다섯째, 경제성이 없는 토지는(기초식량 생산능가에) 팔거나 빌려줌으로써 그 자급에 의한 성력화시설 및 사양관리의 합리화로 낙농근대화(1인당 우유생산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사일리지나 건초의 생산비가 건물기준(D.M.)으로 kg당 300원(옥수수 사일리지 : 수분 75% 기준 1kg당 생산비 70원-80원) 이상이 소요되는 협소한 밭이나 초지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젖소의 사양관리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왜 우유생산비가 많아지고 목장경영이 힘든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여섯째, 자금조사료 생산이용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기계화와 유지관리 및 시설등의 투자를 줄이게 한다.**

경작지 5,000평내외, 착유우 20-30두 정도의 목장에서 트랙터 2대와 각종 조사료용 작업기를 보유하고 자금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낙농이 토지이용농업이라는 기본개념과 자금조사료 생산이라는 낙농인의 신조때문에 과잉투자가 불가피했고 한편, 유통조사료의 자유로운 구입이 불가능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완전타급 조사료이용의 단점

• 첫째, 조사료의 국제적 확보난 그리고 가격급등의 불안감이 있다.

자급사료 위주가 아닌 낙농경영에서는 곡물사료나 조사료가격의 급등이 장기화될 때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자급조사료 생산기반이 식량전략 차원의 국가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둘째, 분뇨의 이용방법에 문제가 있다.

기술적으로 유효한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여 타 작물에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소유하고 있는 기계 및 시설이 쓸모없게 된다.

콘트랙터(의탁생산)에 전매할 수 있다.

맺는말

“조사료의 자급이나 타급이나”의 문제는 대다수의 중소규모의 낙농가, 특히 미래지향적인 정예낙농가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학계 및 연구분야에 일부 인사들의 자급우위의 보수적 비현실론(풀까지 수입할 수 없다.) 때문에 타급 조사료의 경제적 이용이나 세계화의 흐름을 도외시한다면 낙농발전의 추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목건초나 사일리지등의 자급조사료의 생산이 경제

성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대단위의 집약 생산만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한편, 90%의 중소규모 낙농가에게는 조사료 완전 타급의 이점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하면서 국가차원의 경쟁력 있는 조사료 생산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낙농은 국토보존 이용과 고급식량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민족의 중대한 산업임을 정부와 학계는 재인식하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정예낙농인들의 국제경쟁력 있는 자유로운 경영의욕”에 걸림돌이 되는 논리와 규제는 미래지향적 한국형 「착유공장화 낙농시스템」의 창출을 위하여 조속히 걷어 치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는 30여년 동안 「자급사료 위주의 자급낙농을 강조」하면서 산지의 초지화 및 이용체계의 선도, 벼짚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화학처리(가성소다 및 암모니아처리)와 사일리지화등 조사료 가치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지금도 곳곳에서 암모니아처리 벼짚을 이용하는 농가들을 볼 때마다 「약주고 병준셈」인 현실을 통감하게 된다. 왜국적 통제경제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완전타급 조사료의 유리성」(착유공장화 낙농)을 주장하는 뜻은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국낙농이 유지발전되어야 하는가?”를 모든 정예낙농인들과 더불어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여 실천해보자는 데 있다.(「자급조사료 생산이용의 문제점과 대책」 낙농육우 '95. 12월호 참조바람)



“깨끗한 우유생산
소비자는 안심한다”

